



가톨릭 안동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저는 믿나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제123호 2021년 5월 9일(나해) 부활 제6주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구)암천공소 성모상 (1957년경, 높이 53.4cm, 폭 14.2cm)

제1독서 사도행전 10,25-26.34-35.44-48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요한 1서 4,7-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5,9-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사랑밖에 난 몰라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손성문 사도요한 신부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흔히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사랑의 결핍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 공동체와 유리된 삶을 살곤 합니다. 한편 넓게 본다면 구원의 역사에서 하느님 사랑을 방해해온 것은 욕심과 교만,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부정적 감정들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낳고 그것이 쌓여 혐오와 차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에게엔 피부 병자나 이방인이, 중세엔 마녀가, 조선 시대엔 천주쟁이가, 일제강점기엔 조선인들이, 한국전쟁 후엔 북한 주민이 그런 혐오와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에게엔 동남아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혹은 난민, 성 소수자가 그러하고, 코로나 시기 서구사회에선 동양인 전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그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알고 보면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대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지막지하게 사악한 존재로 둔갑시킵니다.

하느님이 마냥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가해자들은 뼈도 못 추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힘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힘이나 지위로는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느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내 권리, 내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십니다.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자녀에게 집착하고 무언가를 강요할수록 사랑을 기대하긴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배려란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나이 지긋한 형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교육에 참여한 뒤 자신이 그동안 가족에게 너무 권위적이었음을 깨닫고는 거기서 배운 대로 아내와 자녀에게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하느님 닮은 사랑을 실천했지만, 가족들은 그런 가장의 모습에 당황하고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그분은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하느님과 일치하기 전까지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다른 감정들이 끊임없이 몰려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암천공소 성모상 (1957년경 추정 높이 53.4cm, 폭 14.2cm)

표지 사진 설명



글· 사진 안동교회사연구소

암천공소는 예천본당 소속으로 1936년 설정되었다가 1995년 구담성당이 설립되며 폐쇄되었다. 공소 건물은 1958년 도경공소를 지을 때 같이 신축하였는데 이 성모상은 이때부터 공소에 모신 것으로 보인다. 아주 소박하면서도 다소 질박한 느낌의 이 성모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물을 만들던 시기의 작품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허리에 푸른 띠를 두르고 오른팔에 묵주를 들고 발 위에 두 개의 장미를 얹고 있는 모습은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가름하고 쳐진 눈매는 한국적인 성모님을 표현하고 있다. 그간 이 성모상은 암천공소의 김한연 요셉 형제님 댁에 있었다.

※ 2021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교구 역사관 개관(7월 예정)을 기념하여 교구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유물들을 소개합니다. 소중한 유물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교구청 사목국(858-311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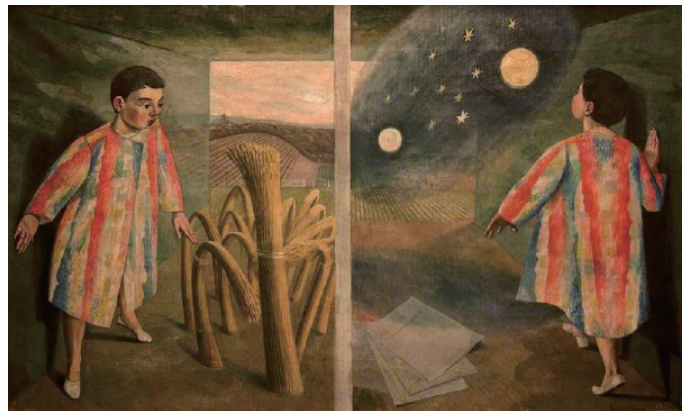
야곱의 편애에 대한 형제들의 질투와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요셉의 두 꿈입니다. 곡식 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의 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꿈이 신의 계시를 받는 가장 신뢰할만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은 종종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상징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두 꿈은 해석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명료해 보여서 형제들이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곧, 부모 형제가 모두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신세가 된다는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요셉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집이 있는 헤브론에서 117~141km나 떨어진 스켄에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마 요셉은 닳새 정도 걸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비가 내리는 우기와 메마른 건기로 나뉩니다. 10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에는 어디에나 식물이 자라거주지 근처에서 방목했지만, 그 외의 건기에는 목초지를 찾아 멀리까지 가곤 했기에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때 양을 친 목적은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흔히 상상하듯 고기가 아니라 빵과 치즈였습니다. 고기는 주로 잔치 때 먹었는데, 이 고기를 먹으려면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오는 친교제 혹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친교가 아

니라, 동물의 피를 땅에 쏟아 부정하게 만들기 전에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 그분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인 빵을 만들기 위해 유다 광야 곳곳에 밀 씨를 뿌렸습니다. 밀 농사를 지으며 동시에 양을 친 것입니다. 양은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으로 털과 젖을 얻기 위해 길렀습니다.

37,14을 근거로 볼 때,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들이 양을 잡아먹지는 않나 감시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스켄에서 형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20km가량 떨어진 도탄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이 힘들게 일하는 자신들을 감시하러 오는 요셉을 환대할 리가 없습니다.

(함원식 이사야 신부/ 안계본당 주임)



「Joseph's Dream」 Evelyn Mary Dunbar 1938-42년 작

신앙의 두레박



병자성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여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은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시며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 병을 앓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이는 병마와 죽음의 위험에 처한 환자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병자성사는 중죄의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해성사 없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의식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직접 병자 성사를 신청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철현 가브리엘 신부/ 함창 본당 보좌)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레지오 마리아

안동 사도들의 모후 레지아 단장 장주현 프란치스코

성모님의 군단이라고 표현되는 레지오 마리아는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재임기인 192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정관 제3조에서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단원들은 악을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성모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을 교회의 지도에 따라 수행하면서,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화를 이룬다. 그 설립자인 프랭크 더프의 비전에 따라, 레지오 마리아는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며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와 일치하고 그 지도하에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고자 노력한다. 레지오 마리아는 교구장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 또는 다른 교회 권위들이 레지오 단원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처분에 놓여 있다. 레지오 마리아는 영혼들 안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익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물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이 아니며, 이러한 활동은 다른 사도직에게 맡긴다."라고 밝힙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 구성은 뿌레시디움(Pr.)→꾸리아(Cu. 본당평의회)→꼬미시움(Co. 지구평의회)→레지아(Re. 교구평의회)→세나투스(Se. 국가평의회)→콘칠리움(Con. 세계평의회)으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연결조직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레지오 창설 100주년 기념의 해로서 2018년부터 접촉 활동(쉬는 교우 권면, 입교자 권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1년 이상 지속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해보려고 하고 할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불

평은 결코 하지 않는다."(교본 28쪽)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이고, 하기 싫으면 벽이 보인다."는 말처럼 노아와 성모 마리아의 믿음과 전적인 순명을 본받아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해 보려는 도전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 뿌레시디움(Pr.)은 도제제도를 이용한 매주 주회합, 꾸리아(Cu.) 이상 평의회는 매월 월례회의 실시

안동교구의 레지오 마리아의 시작은 안동교구 설정보다 11년이 앞선 {1958. 08. 10. 함창 천상의 모후 Pr.(교구 최초) 설립 (담당 사제: 왕목도, 단장: 김종기 바오로)}의 첫 번째 Pr.으로 시작하여 2021년 3월 현재 413개 Pr.(청년 Pr. 2개, 소년 Pr. 4개 포함), 행동 단원 3,040명, 협조 단원 2,196명이 각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 10. 25. 안동교구 레지오 마리아 도입 50주년 행사, 2018. 10. 03. 안동교구 레지오 마리아 도입 6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서 창설자의 정신을 기억하며 선배 단원들이 일구어 놓은 소중한 자산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모든 단원은 매년 교구장 주교님과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님들의 사목 방침의 협력자로서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 또한 교구장님 사목 표어인 "저는 믿나이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주제어에 맞게 1) 적극적인 접촉 활동 전개(선교, 회두), 2) 미사 참례 권유, 3)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 가기, 4) 환경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실질적 활동(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생명의 문화를 지향하는 활동 전개)을 통해 몇몇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 하는 서민은행
대출(신용·담보),예금(비과세),공제
안동시 태사2길 48(안동의료원 앞)
☎ 054-859-1710

홈플러스 롯데리아
단체주문 환영·배달가능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조태상 바르사
☎ 054-857-4477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옥동사거리
☎ 054-859-2879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업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약국 2층
☎ 054-855-75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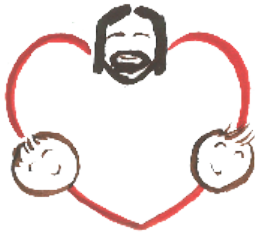
문경새재 임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젤로 ·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 054-571-2285, 054-572-0027

한즈커피 월영교점
맛있는 커피와 수제 디저트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15일 이내 원두사용)
박국복 소피아
안동 1번지 월영교 앞 ☎ 054-858-3476

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직매장입니다.
목성동 성당 입구(가톨릭센터 뒤)
☎ 054-856-0127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 054-655-4994, 010-9494-4074

그림
묵상



사랑

극진한 예수님 사랑은
누구나 다 알지.
그 사랑 흉내만 내도
서로 기쁘지 않겠나

늘 주님 사랑 청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참 신앙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글 · 그림 김시숙 에스텔

백신 나눔 운동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기부해 주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라."(마태 14,16 참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구는 하나'라는 현실을 더욱 더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백신'이라는 새로운 희망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려왔던 백신이 소수의 부유한 나라들에만 편중되어 가난한 나라들의 취약 계층은 더욱 고통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공동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이에게 베푼 것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25,40 참조)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천주교회는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나눔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부해 주시는 백신 기금은 전액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져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는데 사용되어 집니다. 부디 함께해 주세요.

<나눔 통장>

*** 백신 비용은 1회 접종-3만원, 2회 접종-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계좌 : 농협 301-0289-7329-21
- 예금주 :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문의 : 각 지역 성당

CERAGEM 세라젼

★ 우리 가족 척추관리를 위한 ★
Master V4

☎ 사공철 바오로 010-2525-1555
한숙희 바울리나 010-8851-0222

건강재활교정원

허리·목 통증, 거북목·골반 교정
통증·성장 관리, 자세·체형 교정
★ 신부님 · 수녀님 · 교우 우대 ★
이재현(즈가리아) · 천결이(엘리사벳)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60
☎ 054-654-8175

영주 독일 보청기

◀ 노인성 난청 전문 ▶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 054-635-2498, 010-3693-7684

주보 광고 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3. 문의: 안동교구청 사목국
054-858-3114~5

GPS 제품 판매 렌탈

TCL 핸드폰 + 그라스 VR
TV,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외
mygps.kr 검색하세요!
진광호(프란치스코)
☎ 010-6600-3673

문경대학약국

제일병원 처방조제 전문, 제일병원앞
풍부한 복약상담(드시는약 복약상담 가능)
성인 가루약 조제, 당뇨소모성 처방
요양원약 전문상담
대표 약사 나인호 (시몬)
☎ 054-556-8885

죽변 우성 식당

동해안 곰치국, 생선찌개
문어숙회 볶음 등
최윤금 (마르타)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길69
T 054) 783- 8849



기 타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5월 14일 권용오, 황영화 마티아 신부

교 구

■ 백신 나눔 운동

주보 5면에 안내되어 있는 백신 나눔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 수도 성소자 5월 모임

- 일시: 5. 9(주일) 14:00
- 장소: 문경 모전동 성당

■ 2021 교리교사학교

- 대상: 교리교사, 학부모, 사제, 수도자
- 운영: 연간 총 6회 (등록제)
- 신청: 5월 10일까지, 사목국

■ 예비신학생 5월 모임

- 일시: 5. 16(주일) 14:00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모임 예정입니다.

■ 교구청 성모님의 밤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의 밤

- 일시: 5. 22(토) 18:30
- 장소: 교구청

제 단 체

■ '상주이주민센터'를 소개합니다

- 교구 내 이주민들(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주민들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장소: 계림동 성당 내
- 활동: 한글교실(매주 월요일 저녁8시)
- 문의: 534-9901(허 헬레나 수녀)

■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순례

- 주관: 교구 빈첸시오회
- 일자: 5. 9(주일)
- 장소: 문경 마원성지~여우목 성지
- 본당 빈첸시오협의회 순례 가능 일정:
4. 23(금)~9. 27(월) 빈첸시오 성인 선종축일
- 활동: 도보순례 시 묵주기도 및 주변 정화활동
- * 기타 교구 전대사 지정 성지 및 성당 순례 가능
- 문의: 010-7488-7564 교구 빈첸시오회장 윤병권 그레고리오

■ 금성카리타스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모십니다

- 기간: 연중수시, 상담가능(☎ 832-6400)
- 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1~4등급)
- 주소: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5. 15(토) 14:00
-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 연락처: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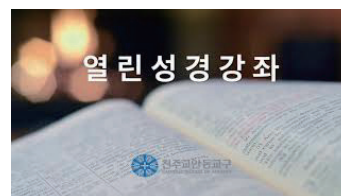
■ 재속 맨발 가르멜회 상주공동체 초대

- "재속 맨발 가르멜회 상주공동체"에서 묵상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이 많으신 형제 자매님(만55세이하)을 초대합니다.
- 정기 모임: 매월 첫째 주 일요일
- 모집 기간: 6월까지
- 문의처: 010-2877-6009(토마스), 010-3531-9401(율리아)

< 교구 유튜브 콘텐츠 소개 >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성 요셉의 해를 맞이하여 주교님께서 "요한 김□ 주교님의 1분 강복"을 통해 교우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영상은 매주 월요일 정오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주교님의 <1분 강복>을 통해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열린 성경 강좌>는 신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편하게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교구 성서사도직위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는 열린 강좌입니다. 그동안 월1회 교구청에서 개최하던 강좌를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좌를 통해 성경을 더 잘 알고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사: 함원식 이사야 신부님 / 안계 본당 주임, 성서학 박사)